



## 한국에 근대의학 심은 미국 여선교사

# 로제타 셔우드 홀 (1865~1951년)

朴 星 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과학사)

지금 대구대학교에는 '로제타 셔우드 홀 기념관'이 있다.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후 43년 동안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 '홀'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홀(許乙 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년)은 우리나라에 뚜렷한 활동을 기록했던 선교사 의사였다. 그러나 사실은 홀여사는 혼자가 아니라 남편 제임스 홀(賀樂 William James Hall, 1860~1895년), 그리고 이들의 아들 셔우드 홀(Sherwood Hall) 등 세사람 모두가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이며 의사였다. 이 땅에 서양 근대 의학을 교육하고 심는데 기여한 미국과 캐나다 일가인 것이다. 로제타는 미국 뉴욕주의 리버티 출생으로 필라델피아 여자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다. 5살 많은 남편 제임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목수가 되려했으나 건강을 해쳐 집에서 쉬다가 1880년 고교를 나왔고, 이어 교사 자격을 얻어 교사 노릇을 얼마동안 했다. 교사 생활로 돈을 모은 그는 퀸스대에 진학했으나,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봉사가 목표였던 그는 뉴욕의 벨뷰병원 의대로 옮겨 국제의료봉사에 눈을 뜨게 되었다. 1889년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진료소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그 때 두 사람

은 만나게 되어 곧 사랑에 빠졌고, 둘이서 함께 선교의(宣敎醫)로 활동할 것을 결심했다. 미국 감리교 선교회가 그들의 한국 파견을 결정했다.

### 남편과 함께 宣敎醫 활약

1890년 8월 먼저 로제타가 서울로 출발했고, 다음해 12월에 제임스가 서울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1892년 6월 27일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교회 결혼식을 거행하며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평양에서 개척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고, 아내는 얼마 뒤에 평양으로 가서 활동하게 되었다. 지금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인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여자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다.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관(旅館)인 줄로 오해하기 쉬운 이름이지만, 당시 정동에 있던 여성 전문병원이다. 사실은 여기서 이미 로제타는 우리 역사에 중요한 한가지 공을 남기기 시작한다. 이 곳 의사 노릇을 하면서 그녀는 이화학당에서 생리학과 약물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때 학생 가운데 하나가 김점동(金點童, 1876~1910년)이었고, 김점동은 뒤에 이 선교의사와의 인연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최초의 한국인 여의사가 되었던 것이다. 김점동은 미국에 가기 전에 평양에서 홀 선

교의사를 돕고 있던 박유산과 결혼했는데, 이 때문에 그녀 이름은 우리 역사에 '에스터 박'으로 더 알려져 있기도 하다.

1892년에 평양에서 의료선교를 시작한 남편을 따라 아내 로제타는 1894년 5월에 평양에서 부인병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그 곳 사람들의 서양인에 대한 반감과 기독교에 대한 반발 등으로 어려움만 겪던 남편은 말라리아에 걸려 1895년 11월 24일 서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참 청일전쟁이 전국을 휩쓸고 혼란이 극심하던 때였다. 그들 사이에는 아들 셔우드가 태어나 1살이었고 로제타는 다시 임신중이었다. 11월 27일 배재학당에서 영결식을 마친 로제타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로제타는 그냥 미국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1896년 1월에 아이를 순산했는데, 딸 에디스였다. 그리고 아들 셔우드와 딸 에디스를 데리고 1897년 1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동안 모금한 돈으로는 이미 평양에 남편기념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녀는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의 점자를 배워 그것을 한국에서 이용할 길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원래 평양에서 선교 일을 돕고 있던 오석형의 딸 봉래가 눈먼 아이인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 아이를



1890년 미국인 여성 선교의(宣敎醫)로 한국에 온 로제타 셔우드 홀(許乙)은 남편 제임스 홀과 아들 셔우드 홀 등 일가족이 43년동안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분야를 개척하며 봉사한 선교사 가족이다. 남편이 평양에서 개척교회를 세워 활동할때 로제타 홀은 서울 이화여대 부속병원 '보구여관'에서 환자를 돌보며 생리학을 가르쳤다. 그 후엔 평양에서 맹인교육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국 최초의 점자를 만들어 성경의 4복음서를 점역(點譯)한 한국 점자의 창시자이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 또 다른 한국의 맹인을 위해서도 점자를 익혀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다. 그렇게 배운 점자로 그녀는 한국에 맞는 방법을 고안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를 만들어 「성경」의 4복음서를 점역(點譯)해 내기도 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의 점자가 사용되기에 이르렀지만 로제타가 한국 점자의 창시자이며 농아학교의 창시자로 꼽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한국 최초의 점자 만들기

로제타는 1898년 6월 18일 여성진료소의 문을 열었다. 평양감사의 아내의 병을 낫게 해준 결과, 치료소 이름은 평양감사가 지어준대로 '광혜여원' (廣惠女院 Women's Dispensary of Extended Grace)이라 했다. 홀부부가 평양에서 이미 시작했던 의료활동은 '평양홀병원'으로 1897년 2월에 다시 문을 열었고, 이제 '광혜여원'도 다시 열려 평양 지역의 의료혜택이 안정되기에 이른 셈이었다.

당시는 아직 여성이 남자 의사의 진찰을 받으려하지 않는 때였다. 몇 안되는 선교여의사들의 활동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기도 했다. 환자들이 대부분 하층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상류층의 여성들은 대낮에 거리를 나다닐 수가 없기 때문"

이라고 로제타는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밤에도 병원문을 열어 어떤 계층의 여자 환자라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다"고 하였다. 원래 처음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여자와 어린이들만을 따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그 요청에 따라 1887년 메타 하워드(Meta Howard)가 최초의 여성 선교의로 조선에 파송된 일이 있다. 하워드는 조선에서 수천명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치료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1889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로제타는 바로 그의 뒤를 잇기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던 셈이다. 로제타는 1890년 10월 13일자 일기에서 그 당시의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도착 첫날 병원을 가보았는데 집에서 가까웠다... 병원과 시료원을 돌아본 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이다. 약간 구조를 고친 조선집이었지만 보기에 훌륭하고 병원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방들은 온돌이며 환자들은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쉬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바닥에 앉아야 하므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이 자세가 매우 힘이 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다. 첫째 이유는 환자들이 조선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양식 침대는 매우 춥다

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해롭지 않은 풍속을 고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방바닥이 따뜻해서 잠자기에는 참으로 편안하다. 들쭉는 환자가 침대 밖으로 나올 염려가 없다. 방 전체가 하나의 침대나 마찬가지니까. 셋째는 온돌방은 청결하여 소독하기가 매우 쉽다... 병원에는 약품이 꽤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 퇴임 후엔 아들이 대이어

전혀 단편인 문화에 처음 접한 이국의 젊은 여성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의료활동을 계속한 로제타는 후진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 이미 그녀 아래 교육받은 여의사 3명이 조선총독부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일도 있다. 1928년에는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서울에 세워 여자 의사 양성의 길을 정식으로 열기도 했다. 그 전에 있던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활성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이 학교는 그녀가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몇 차례 이름을 바꾸면서 결국 수도여의대, 우석여대에서 고려대의과대학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로제타는 1933년 정년 퇴임하여 귀국했고, 아들 셔우드가 그 뒤를 이었다. 1951년 4월 5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서울 외국인 묘지에 안장됐다. ①7